



[산업] 삼양그룹 ERP 재구조 추진 08



Life

[바이오] 美 코로나대응 의약품 공급처에 SK L2



갈 곳 잃은 주민 기피시설... 갈등 분석해 해법 찾는다

서울시, 기피시설 갈등분석 연구 사회적 갈등 관리 방안 마련할 것

서울시가 비선호시설(기피시설) 운영에 따른 주민 피해 정도를 조사해 쟁점과 이해관계를 분석, 사회적 갈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비선호시설 갈등영향분석 연구영역을 진행해 시 소유 기피시설 운영으로 촉발된 갈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시는 "비선호시설로 인한 갈등양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고 심각한 갈등에 이르러야 대화기구가 출범하는 등 문제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쟁점 해소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아 갈등의 형태가 변



서울시가 5~10월 비선호시설 갈등영향분석 연구영역을 시행한다. /유투이미지

형·파생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시는 1963년 파주시 용마리에 서울시립묘지 설치를 시작으로 장사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을 인근 기초자치단체에 두고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각 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이해관계가 충

돌,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총 16건의 갈등영향분석을 시행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건, 2014년 2건, 2015년 1건,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1건, 2019년 2건이다. 대표적으로 도로사업 소청사이전, 행정집행 과정에서의 법적

요인에 관한 갈등, 이웃분쟁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갈등영향분석 등이 있다. 작년에는 민생규제 정책 외 1건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을 시행해 해결 대안을 모색하고 갈등유발요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그러나 시가 작년 11월 25~27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공공갈등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인 57.4%가 '서울시에서 발생한 공공갈등이 전반적으로 심각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같은 조사 때 45.8%보다 11.6%포인트 높은 수치다.

비선호시설 건설로 인해 서울시와 인접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가 지역주민의 피해가 있다면 계획을 재검토하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68.3%에 달했다. '일부 피해와 반

말이 있어도 다수 시민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30.5%에 그쳤다.

시는 이달 중 비선호시설 갈등영향분석 연구영역을 발주하고 5개월간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기피시설 관련 갈등 사례로는 시내 장애인 연수시설, 실버케어시설, 자원회수시설 건립 문제와 시외장사시설(승화원, 시립묘지), 환경시설(물재생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수용시설(정신병원, 요양원 재활원) 설치·이전 계획 등이 있다.

시는 "과거에는 비교적 쉬운 조건으로 기피시설을 서울시내 또는 인근 기초자치단체에 입지시켜 운영해왔던 서울시로서는 이러한 갈등의 실태를 정책 의제로 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며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공공의대 설립 추진... 의료체계 강화

전국 최초 지방자치 차원 의대 감염병 등 특수분야 인력 양성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한다. 기존 의대 체제에서 인력확보가 어려운 응급 의상, 감염성 질환 역학조사, 호스피스 등 공익성이 강한 특수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열고 "감염병 대응역량과 공공보건으로 체계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면서 "전 국민이 공공의료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공공의과대학 설립의 적기이고 시대적 요구이며 시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미국 WWAMI(와미) 주립의과대학은 워싱턴·아이오와·앨래스카·몬태나·아이다호주가 연합해 설립한 학교로, 각 주마다 연간 10명씩 예비의료인력을 선발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20일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서울형 표준방역모델 구축 및 재난대응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박 시장은 이날 서초구 원지동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활용, 종합병원과 국내외 공공의료 관련 R&D(연구개발) 기관을 설치·이전해 '서울시 공공의료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서울시가 제안한 국립중앙의료원의 미공병단 부지 이전과 부설 감염병전문병원 신축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박 시장은 "올 하반기까지 서울시 자체의 '감염병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관련 전문가들로 조직을 구성해 감염병 유행 예측과 대응책을 연구토록 하겠다"면서 "시에 '역학조사실'을 신설해 전문적인 역학조사를 맡기고, 감염병 신속대응단과 자치구 역학조사관의 역할을 보다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매뉴얼 작성, 방역물품 확보·보급 등 상시 방역관리를 담당할 '방역관리팀'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공공의료기관의 감염병 등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재단 내에 '시립병원운영 혁신센터'를 설립한다.

아울러 시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인 정부의 감염병 대응단계를 서울시의 상황에 맞게 세분화해 '경계'와 '심각'을 각각 1·2단계로 나누고 '회복기' 단계를 만들어 7단계로 설정하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다시 열린 수문장 교대식

20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중단됐던 수문장 교대의식이 열리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안동시,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제외

안동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사업자를 위해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도로법상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액이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시는 감면 대상 1,425건에 감면액 규모는 1억2,900만 원으로 추산했다.

시는 대상자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전화, 팩스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봉현 기자 newsmun@

강남구 '밤고개로' 8차로로 확장...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수서IC-세곡동사거리 2.75km 구간 확장

서울시는 강남구 수서나들목(IC)과 세곡동사거리 사이 '밤고개로' 2.75km 구간을 기존 왕복 6차로에서 7~8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총사업비 355억원이 투입된 이 공사는 2017년 5월 시작했다. 밤고개로 주변에 수서고속철(SRT) 수서역 개통과 강남보급자리지구 개발 등이 이뤄지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도로 확장과 함께 수서역~세곡동사거리 구간은 전선 등의 지중화 공사로



도로 확장 공사 후 밤고개로 모습. /서울시

병행해 보행 편의를 개선했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밤고개로 차량 정체가 개선돼 통행

이 편리해질 것"이라며 "공사 기간 불편을 감수해주신 시민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영양군,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홍보 지원

9월 13일까지 진정 접수

영양군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군복무 중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관내 유가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 3년의 활동 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

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의문사·사고사·병사·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영양군은 진정 접수 기한이 2020년 9월 13일로 4개월가량 남았기 때문에 접수 기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태우 기자 ktu3987@